

이 시의 내용은 어제 묵상했던 시편 82편의 말씀과 같이 만왕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주의 원수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판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시 82: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또 시인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열거하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애통해하며 주님의 심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 침묵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다르게 쓰였는데 첫번째 ‘침묵하다’는 안식이나 쉼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번째 ‘잠잠하다’는 ‘혀를 깨물다’의 의미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중지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번째 ‘조용하다’는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편 2절에 나타난 원수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침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떠들다’는 말은 온갖 소리가 다 뒤섞인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소음을 뜻합니다. 즉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소란을 다 피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공동번역에는 ‘머리를 치켜 든다’로 번역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거만한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주의 원수들이 소란을 피우고 더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고발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과 귀로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121:4-5,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시인의 고발

시인은 이제 주의 원수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고 있습니다(3절상). 둘째로 원수들은 주께서 숨기신 자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의 보배’와 같은 자녀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3절하). 3절에서 기록된 ‘주의 백성과 주의 보배’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간계를 꾸미고 의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러한 일에 한 두 민족들만 개입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5절,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시의 특징은 시인은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6-8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다양한 원수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이 대하 20장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 에돔 동맹군과 유다의 여호사밧왕 때의 전투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에 대한 설명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은 어느 특정한 때라고 단정짓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원수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만한 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3:7,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골고루 건강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사에 유익된다는 말씀입니다. 딤후 3:16-17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지혜와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김택호<중국>, 박훈용<캄보디아>, 우석정<비에트남>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